

“BDA 자금 인도적으로 쓰겠다”

北 외무성 송금 확인...2·13 합의 이행 착수

북한 외무성은 25일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됐던 자금이 북한 계좌로 송금됐음을 확인하면서 이 돈을 인도적 목적에 사용하고 2·13 합의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BDA에 동결됐던 자금이 우리의 요구대로 송금됨으로써 마침내 발생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됐다”며 “동결 해제된 자금은 계획대로 인민생활 향상과 인도주의적 목적에 쓰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3월

1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결정을 밝히면서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자금을 인도적, 교육적 목적에 포함해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쓰기로 서약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동결자금 문제를 중시한 것은 돈(액수)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6자가 확인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2·13 합의의 이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26일부터 평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 대표단과 핵시설 가동 중지 및 검증·감사와 관련한 협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BDA 북한자금을 받아 조선무역은행으로 입금된 러시아의 달콤뱅크은행은 25일 자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자금이 25일 북한 은행에 입금됨으로써 이제 BDA 자금 이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우리는 이번 (자금 이체 중개) 작업이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한반도 긴장 해소, 북한의 국제사회의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레바논서 유엔군 노린 폭탄 테러...8명 사상

내달 한국군 배치 안전 직신호

24일 레바논 남부의 유엔평화유지군(UNIFIL) 활동지역에서 유엔군을 노린 폭탄공격이 발생함에 따라 UNIFIL의 일원으로 내달 레바논에 전개되는 한국군의 안전에 직신호가 쏘였다.

이번 테러가 발생한 지역은 한국군이 배치될 지역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영토가 협소한 레바논 남부의 UNIFIL 주둔지역 내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350명으로 구성된 한국군 ‘동명(東明)부대’는 내달 4일과 19일 각각 선발대와 본대로 나뉘어 레바논 남부의 주둔지인 티르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유엔군 노린 첫 공격=레바논 동남부 마을인 마르자룬과 키얌 사이에서 24일 폭탄이 터져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소속 스페인 병사 5명이 죽고 3명이 부상했다. 이날 폭발은 지난해 8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소속 스페인 병사들이 24일 남부 레바논에서 숨진 동료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AFP=연합뉴스

싸움에 유엔 안보리 휴전결의로 중단된 뒤 UNIFIL을 겨냥한 첫 공격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안보리 휴전결의에 따라 UNIFIL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격의 배후는=이번 공격의 배후로 레바논 북부 지역에서 레바논군과 교전해 온 파타 알-이슬람에 의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북부의 나흐르 알-바리드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레바논군과 싸워온 수니파 민병조직인 파타 알-이슬람은 이달 초 자신들을 소탕하려는 레바논군의 작전에 UNIFIL이 개입했다며 UNIFIL의 역할을 문제 삼았다.

IAEA 실무 대표단 오늘 북한 입국

영변 핵시설 사찰 절차 등 논의

북한 핵시설의 폐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하는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 단장인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부총장이 25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조만간 현안인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실상 양자 차원의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장치 담당 사무차장이 25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하이노넨 부총장은 이날 오전 9시5분(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 일반 탑승객 출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변 핵시설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는 IAEA를 대표해 영변 핵시설 폐쇄를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상하려 한다”면서 “이번 방북은 (핵시설 폐쇄의) 긴 여정을 위한 하나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하이노넨 부총장은 베이징에서 카무바 차터보 IAEA 안전조치국장 등 3명의 대표단과 합류한 다음 26일 북한으로 들어가 30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영변 핵시설 사찰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25일 “BDA 협상을 하는 것처럼 북·미 간 양자 트랙에서 HEU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형식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이나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핵프로그램 목록협약’을 통해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있지만 HEU의 존재는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주장하는 HEU와 북한이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LEU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통해 양측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접점 찾

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HEU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은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회의 등에서 추진되는 형식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파키스탄 ‘최악 폭우’ 수백명 사망

벵골만에 형성된 저기압 전선과 본격적인 몬순의 영향으로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파키스탄 남부 항구도시인 카라치에서는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까지 228명에 달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시에드 사르다르 아흐메드 파키스탄 신드 주(州) 보건장관은 24일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3일 43명이나 나온 데 이어 오늘 185명이 추가

로 확인됐다”며 “이로써 총 사망자는 228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도 2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카라치에는 시간당 최대 1천 7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십 채의 가옥이 붕괴돼 잔해에 깔려 숨지거나, 전력 공급선이 끊어지면서 감전사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주말 이후 더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 당국의 예보가 나와 있어 추후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폭우가 쏟아지



기 시작한 안드라 프라데시, 케랄라 주(州) 등 인도 남부와 서부의 마하라슈트라 주 등에서는 이날까지 113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뉴델리=연합뉴스

美 작년 자선기부액 280조원...사상 최고

작년 한 해 미국에서는 총 3천억달러(약 280조원)에 달하는 자선기금이 모금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기빙USA재단’ 자료를 인용, 25일 보도했다.

이 재단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미국인이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등의 명의로 기부한 자선기금은 총 2천 950억달러에 달해 1년 전인 지난 2005년의 2천830억 달러에 비해 약 120억달러 늘었다.

2005년 자선기금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 구호, 2004년 12월 발생한 서남아시아 쓰나미 이재민 구호 등 ‘이례적인’ 대규모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에 특정해 기부된 74억달러를 빼면 2005년 대비 2006년 자선기금 모금액은 6.6% 증가한 셈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작년 자선기금 모금액 가운데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빌-멜린다게이츠재단에 약정한 310억달러 가운데 1차로 기부한 19억달러가 포함되는 등 이른바 ‘큰손’들의 거액 기부금이 합산된 수치지만 개인 기부금이 2천228억9천만달러에 달했다.

‘기빙USA재단’의 조지 루블로는 개인 기부금 비중이 4분의 3 정도 되는데 비해 기업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루블로는 또 연간 소득 10만달러(약 9천300만원) 미만의 계층 가운데 65%가 자선기금을 기부했는데 이는 이 계층의 투표율, 일요관 신문 구독률보다도 높은 것이어서 높게 평가했다.

“라이스 美 국무 10~11월 방북 가능성”

동북아시아대외 이수훈 위원장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이수훈 위원장은 25일 “북한의 핵능력과 단계에서 잘 진전이 되면 10월이나 11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가 상당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라이스 장관의 방북은 미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핵능력과 단계가 일정하게 진전되거나 이행됐을 때 라이스 장관의 방북 전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자격증 합격을 보장받고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

수강문의 : 1588-7509(취업공부) <http://gg.jjang.co.kr>

“비싼 수강료 내고 학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 조금 공부하고 빨리 합격하고 싶은 당신! 이제 “짱”에서 공부하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자격증 검정시험 86강좌 온라인 강의 리스트

- ① 전기분야 - 전기기능사, 전기기사(산업포함), 전기공사기사
- ② 환경분야 - 수질환경, 대기환경기사(산업포함), 소음진동기사(산업포함)
- ③ 소방분야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관리(산업포함)
- ④ 안전분야 - 건설안전기사(산업포함)공용환급, 산업안전기사(산업포함)
- ⑤ 가스분야 - 가스기사(산업포함),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 ⑥ 보일러분야 - 보일러취급기능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산업기사
- ⑦ 용접분야 - 용접기능사(산업포함)(필기)
- ⑧ 공조냉동/열관리 - 공조냉동기사(산업포함), 공조냉동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열관리기사(산업포함)
- ⑨ 위험물분야 -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 ⑩ 건축/토목 - 건축기사(산업포함)공용환급, 토목기사(산업포함)
- ⑪ 통신분야 - 무선설비기사(산업포함), 정보통신기사(산업포함)(필기)
- ⑫ 부동산 -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 ⑬ 일반/건설기계 - 일반건설기계기사
- ⑭ 신규/유망자격증 - 유기능, 기능사(완벽대비), 비세(1,2,3급), 경비지도사(정중장교), 물류관리사(완벽대비), 유통관리사(2급(핵심강의))
- ⑮ 정보처리/워드/컴·활 - 정보처리산업기사(필기),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필기, 실기), 2007 IT0환급, 파워포인트, 엑셀, 오피스실무, 다자산업실무
- ⑯ 공무원/고시 - 7급공무원, 9급 공무원(종합 단과반) 10급기능제단과반, 법원/경찰(교정단과반)
- ⑰ 요리분야 - 조리기능사(필기),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필기)
- ⑱ 한자분야 - 실용한자(비즈니스한자), 한자능력시험 3급 특강, 한자는 읽히나 4, 5, 6, 7, 8급 대비반

“짱”은 베스트 수험서의 저자 직강 온라인 강좌 포털 사이트로 쉽고 + 재미있으면서 + 짧지만+깊이 있는 강의 구성으로 교육생들에게 핵심 위주로 시험에 꼭 나올 부분, 누구나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알맹이만 콕콕 찌르는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짱 강사의 강의

1. 강의 신청할 때 **교재 무료 제공**
2. 강의기간 **유동적(중간 정지 가능, 3개월 + 1개월)**
3. 강의료 50% 이상 저렴, 강의 횟수에 제한이 없음
4. 수강자 PC장애 발생시 원격 지원, 최고 품질의 동영상 플레이어
5. 10% 적립(현금처럼 사용), 단체 수강할 때 20~30% 할인 혜택
6. 2007 대비 특별 강좌로 공단 미발표 문제는 실시간 업데이트

그렇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자격증을 왜 따야 하는가?

1.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병역특례 취업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3. 공무원, 공기업 시험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4. “법정채용자격증”의 경우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새롭게 단장한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 25,000부터 (7,8,9월에 한하여)

위 가격은 1인 식비를 기준으로 하며 10% 세금이 별도 부가됩니다.

● 대표전화 : 0621228-8000 ● 예약문의 : 0621228-4711~2

특전사항

예약 고객에 대한 특전사항

- ※ **객객 250명 이상 예약 시**
 - 아이스키빙 무료 제공
 - 3단 케이크 및 축배용 샴페인(1병) 무료제공
 - 특수효과 연출 무료
 - 웨딩 캔들, 꽃장식(꽃길,주례단상 조화), 폐백실 및 폐백의상, 50% 할인
 - 웨딩 전일 또는 당일 하나뿐 룸 1실 1박 무료제공(사우나, 조식 2인 포함)
- ※ **객객 400명 이상 예약 시**
 - 아이스키빙 무료 제공
 - 3단케이크 및 축배용 샴페인(1병) 무료 제공
 - 특수효과 연출 및 꽃장식(꽃길,주례단상 조화) 무료제공
 - 웨딩 캔들, 폐백실 및 폐백의상 무료 제공
 - 웨딩 전일 또는 당일 하나뿐 룸 1실 1박 무료제공(사우나, 조식 2인 포함)